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보이는 고조선 인식의 검토

Problems of Old Joseon Construction in Goguryeos Mythos

저자
(Authors) 김성환
Kim, Sung-hwan

출처
(Source) [한국고대사탐구 13](#), 2013.4, 59-97(39 pages)
[Sogang Journal of Early Korean History 13](#), 2013.4, 59-97(39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고대사탐구학회](#)
Society for the Study of Early Korean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185133>

APA Style 김성환 (2013).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보이는 고조선 인식의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13, 59-97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9/12 10:3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보이는 고조선 인식의 검토

김 성 환*

- I. 머리말
- II. 고조선과 고구려 건국신화의 출발, 태백산
- III. 부여계 건국신화에서의 단군과 부루·주몽의 혈연관계
- IV. 고구려 동맹에서 고조선 건국신화의 요소
- V. 맺음말

【국문초록】

고구려 영역에 있던 고조선 유민들은 시대를 거듭하면서 약화·쇠퇴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고조선 건국신화의 전통을 이어갔을 것이다. 고구려 건국 이후 주몽, 동명의 시조인식이 정립되어 가면서 그 집단들은 고구려에 동화되었고, 고조선 건국신화 역시 고구려 건국신화에 용해되었을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인의 후손임을 자처했던 비류국의 송양 집단도 그중 하나였다.

고구려 시조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라는 『삼국유사』 「왕력」의 기록은 고조선과 고구려의 역사계승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또 『삼국유사』 소재 『단군기』와 『제왕운기』 소재 『단군본기』에서 단군과 부루·주몽의 관계 역시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5세기의 「광개토왕릉비」, 8세기 초의 「천남산묘지명」, 『국사』의 「고려본기」, 『삼국유사』 소재의 『고기』와 『단군기』, 『제왕운기』 소재의 『단군본기』 등에 전하는 단군과 주몽에 대한 출자전승은 시간성을 가지며 상호 교섭하고 있으며, 고조선과 고구려를 이어주는 역사계승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결과가 나타났다.

고조선과 고구려의 역사계승 문제에서 『제왕운기』에 전거하여 ‘선인’의 후예임을 자처했던 비류국 송양만을 단군과 연결시키기보다 범부여계·고구려계를 아

* 경기도박물관

우르는 인식론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라는 『삼국유사』 「왕력」의 기록은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송양 집단을 고구려에서 계루부 이전의 왕족인 연노부와 직접 연결시키려는 논의는 보다 큰 틀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특히 웅심산[웅신산]과 주몽의 관계는 단군과 해모수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비류국 송양과의 관련성에서 해석될 문제는 아니다. 해모수가 유화를 그곳으로 유인하였음은 웅심산이 해모수와 연고가 있는 장소였음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도 부루와 주몽이 단군의 아들로 설정되고 있는 배경을 유추할 수 있다.

5세기 중엽에 조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장천1호분의 벽화중에서 수목송배의 모습과 곰·호랑이가 그려져 있는 그림은 천신이자 조상신의 제의를 중심으로 지모신의 제의를 병행하였던 고구려 동맹제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수목송배의 그림에서 다른 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고 우람하게 그려진 백마는 고구려왕이 동맹제를 주관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린 것이라고 짐작된다. 여기서는 이를 412년 장수왕의 즉위 또는 427년 평양 천도와 관련한 시조묘 제사 및 동맹제의에 참여한 인물과 관련한 것으로 추측하였다.

주제어 : 고조선 건국신화, 고구려 건국신화, 동맹, 계루부, 장천1호분

I. 머리말

고구려의 고조선 역사계승인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고구려 고분벽화 중 5세기 초의 각저총에서 “나무에 기대어 있는 곰과 호랑이” 그림, 5세기 중엽의 장천1호분에서 “나무 밑에서 웅크리고 있는 곰” 그림 등이 『삼국유사』의 고조선 건국신화에 나타나는 모티브와 관련되어 논의된 바 있다.¹⁾ 또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1) 齊藤忠, 「集安角抵塚壁畫の熊と虎の畫」 『東アジア葬制の研究』, 第一書房, 1987(김진광 역, 「집안시 씨름무덤 벽화의 곰과 범 그림」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 민속원, 2009); 「角抵塚の角抵(相撲)・木・熊・虎とある畫面について」 『壁畫古墳の系譜』 第三章, 1989(『日本考古學研究』2), 學生社; 강룡남, 「단군에 대한 고구려사람들의 이해와 송배」 『역사과학』96-3, 1996; 김성환, 「단군신

의 동천왕 평양 천도 기록 중에서 “평양은 仙人王儉의 遺宅”이라는 기록,²⁾ 고려 후기 「趙延壽墓誌銘」의 “평양의 출발은 선인왕검으로 삼한의 앞에 있어 천여년을 넘게 장수하고 또 仙人이 되었다”는 기록³⁾ 등도 고구려 도읍이었던 평양에서의 고조선 단군 관련 기록으로 이해된다.

이규보(1168~1241)는 「동명왕편」에서 『舊三國史』의 「東明王本紀」를 인용하여 동명이 天帝의 후손임을 밝히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沸流國王 松讓은 선인의 후손으로 여러 대에 걸쳐 그 지역에서 왕이었음을 밝히고 있다.⁴⁾ 이에 대해 이승휴(1224~1300)는 송양이 언급하고 있는 ‘선인’의 용례에 주목하고, 이를 확대 해석하여 “송양 역시 단군의 후손인 듯하다”고 추측하고 있다.⁵⁾ 그런데 『삼국사기』에서는 송양이 선인의 후손이라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⁶⁾ 이에 대해 이규보는 “1193년(명종 23) 4월에 『구삼국사』를 얻어 『동명왕본기』를 보니 그 신이한 사적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했다. 그러나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鬼나 幻으로 생각하였는데, 세 번 반복하여 읽어 점점 그 근원에 들어가니 幻이 아니고 聖이며 鬼가 아니고 神이었다. 하물며 國史는 사실 그대로 쓴 글이니 어찌 허탄한 것을 전하였으랴. 金公 富軾이 국사를 重撰할 때 자못 그 일을 생략하였으니, 공이 국사는 세상을 바로잡는 글이니 크게 이상한 일은 후세에 보일 것이

화의 기원과 고구려의 전승, 『단군학연구』3, 2000.

- 2) 『삼국사기』권17, 고구려본기5, 동천왕 21년
- 3) 「趙延壽墓誌銘」(金龍善 編著, 『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3) 참조.
- 4) 『동국이상국전집』권3, 고을시, 동명왕편
- 5) 『제왕운기』권하, 東國君王開國年代, 漢四郡及列國紀
- 6) 『삼국사기』권13, 고구려본기1, 동명성왕 21년 “... 王見沸流水中有菜葉逐流下知有人在 上流者 因以獵牲尋至沸流國 其國王松讓出見曰 寡人僻在海隅 未嘗得見君子 今日邂逅相遇不亦幸乎 然不識吾子自何而來 荅曰我是天帝子來都於某所 松讓曰我累世爲王地小 不足容兩主 君立都日淺爲我附庸可乎 王忿其言 因與之鬪辯 亦相射以校藝 松讓不能抗”

아니라고 생각하여 생략한 것이 아닌가”라고⁷⁾ 하여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최근에 「동명왕편」과 『제왕운기』의 이 기록을 토대로 선인의 후손이었다는 비류국의 송양 세력을 고구려의 절노부와 관련하여 적극 해석하여 고조선과 고구려의 역사계승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⁸⁾ 이 견해는 비류국이 고조선 계통의 세력이었음과 주몽 세력이 졸본지역에 정착하기에 앞서 고조선의 옛 영역이었던 그곳에 선주하여 정치세력을 이루고 있었음을 전제한다. 그런데 부여에서 남하한 여러 부여 세력과 선인으로 상징되는 고조선의 후예가 역사적으로 단절되는 모순을 가져오기도 한다. 특히 고조선 역시 帝釋·上帝로 대표되는 천손의식을 가진 세력이었음에서 또 다른 천손의식을 내세운 주몽 집단을 제외하고 선인의식을 내세운 송양 집단을 단군의 후손으로 직접 거론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또 결정적으로 주몽을 단군의 아들로 설정하고 있는 『삼국유사』의 기록이 무시되고 있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 글은 이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보이는 고조선 계승인식의 문제를 시론적인 입장에서 검토하려고 한다. 먼저 고조선과 고구려 건국신화가 지니는 장소 공유성의 문제를 검토하여 그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 『삼국유사』 「왕력」의 관련 기록과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서 전하고 있는 『檀君記』와 『檀君本紀』의 기록, 고구려의 제천 의례인 동맹에서 단군신화와 관련한 모티브의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7) 주 4)와 같음.

8) 조병중, 「고구려 사회의 檀君認識과 종교문화적 특성-蘇塗文化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21, 2001; 「한국 고대사회의 고조선·단군인식의 연구-고조선·고구려시기 단군인식의 계승성을 중심으로-」 『선사와 고대』23, 2005a; 「고구려 벽화고분에 나타난 단군 인식 검토-한국 고대 동물송배전통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단군학연구』12, 2005b; 최일례, 「고구려인의 관념에 보이는 단군신화의 투영 맥락」 『韓國思想과 文化』55, 2010.

이것은 송양 집단으로 추측되며 전 왕족으로 알려져 있는 연노부(소노부)와의 관련성보다⁹⁾ 왕위를 계승한 계루부와와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이점에서 5세기 중엽에 조영된 것으로 추측되는 장천1호분의 수목송배신앙과 곰과 호랑이가 그려져 있는 벽화의 내용을 이 시기에 설행되었던 고구려의 제천의례인 동맹과 관련하여 시론적인 입장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II. 고조선과 고구려 건국신화의 출발, 태백산

帝釋 桓因의 서자 桓雄이 무리 3천을 거느리고 太伯山 神壇樹 아래로 내려와 이곳을 神市라 하며 桓雄天王이 되었다. 그리고 같은 굴에 살고 있던 곰과 호랑이가 사람되기를 빌어 마침내 곰은 여자의 몸을 얻었으나, 호랑이는 그러하지 못하였다. 또 熊女는 매양 壇樹 아래에서 아이가지를 빌어 [神: 필자 주]雄이 잠시 사람으로 변해 이와 혼인하고 낳은 아들이 壇君王儉이었다.”(『삼국유사』권1, 기이2, 고조선(왕검조선))

『삼국유사』에서 전하는 단군의 출생과 관련한 신화 내용이다. 환웅이 지상에 내려온 곳으로, 곰과 호랑이의 근거지로, 단군의 출생지로 태백산이 제시되고 있다. 또 다른 신화의 내용을 전하고 있지만, 檀雄天王과 그

9) 최근 消奴部の 왕통을 琉璃系로 파악한 연구가 제출되었고(조민규, 『高句麗太祖王의 出自와 桂婁部 王統의 成立過程』,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유리계 이후 태조왕대에 나타나는 단절에 대해서는 태조왕 세력을 추모왕계의 먼 방계이거나 추모왕계와 혈연관계가 없는 계루부내의 다른 소집단으로 보거나(노태돈, 「朱蒙의 出自傳承과 桂婁部の 起源」, 『한국고대사논총』5, 1993, 66쪽), 주몽이 부여에서 남하할 때 계루부의 구성원이 된 모둔곡의 再思 계열로 보는 견해가 있다(이귀숙, 「高句麗 初期의 王統變化와 朱蒙 始祖認識의 成立」, 『歷史教育論叢』39, 2007).

孫女·檀樹神의 영역으로 태백산도 『제왕운기』에 등장하고 있다.¹⁰⁾ 태백산은 지상에서 환웅의 영역이자 곰과 호랑이, 단수신의 영역이었다.

그런데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이곳은 금와가 하백에게 내쳐진 유화를 만난 優渤水의 북쪽에 있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천제 아들인 해모수는 유화를 熊心山 아래로 유인하여 압록강변에서 사통하였다.¹¹⁾ 고구려 건국신화의 주몽 출생과 관련한 장소인 태백산은 고려 전기에 편찬된 『삼국사』의 「동명왕본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술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규보의 「동명왕편」에서 이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그대로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모수는 백여인의 거느리며 오룡거를 타고 태백산으로 내려와 웅심산에 머물고 있다가 熊心淵에서 놀고 있던 유화를 피어 사통하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자 하백이 유화를 우발수로 추방해버렸다”는¹²⁾ 내용이 그것이다. 『삼국유사』에서도 대동소이한 내용을 전하고 있으나, 해모수가 유화를 유인하였던 웅심산을 ‘熊神山’으로 기록하고 있다.¹³⁾

주몽의 부계인 해모수는 환웅과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태백산으로 내려왔다. 그 주변에 웅심산[웅신산]·웅심연 등이 있었다. 웅심산[웅신산]·웅심연은 고조선 건국신화에서 웅녀로 대표되는 세력의 근거지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웅심[웅신]’의 용례는 고조선 건국신화가 그곳에 전승되면서 웅녀 역시 신격으로 모셔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¹⁴⁾ 그리고 그곳은 이제 해모수 세력의 근거지였다. 해모수가 유화를 그곳으로 유인하였다는 점에서 그렇다. 하백에게 내쳐진 유화가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 살고 있었다는 점에서 우발수 역시 해모수 세력 범위로 포함할 수 있다. 웅심산[웅신산]·웅심연·우발수 등을 범위로 하는 태백산 일대가 고조선

10) 『제왕운기』권하, 동국군왕개국연대, 전조선기

11) 『삼국사기』권13, 고구려본기1, 동명성왕

12) 『동국이상국전집』권3, 고을시, 동명왕편

13) 『삼국유사』권1, 기이2, 고구려

14) 김성환, 앞의 논문, 2000, 참조.

멸망 이후 그 유민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음을 보여준다. 이점은 해모수 역시 고조선 유민이었을 가능성으로까지 확대된다. 그가 천제의 아들이었음을 표방한 점에서도 그러하다. 환웅이 잠시 사람으로 변하여 웅녀와 결혼했다는 것과 해모수가 유화를 사통하고 하늘로 올라가버렸다는 내용 역시 일정부분 교섭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발수가 압록강변에 있었다는 점은 『삼국유사』에서 태백산으로 비정되고 있는 묘향산과 지역에서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고구려 유민들이 건국한 발해의 근거지인 태백산이¹⁵⁾ 장백산·불함산·도태산으로도 불리는 백두산이었음을 고려할 때,¹⁶⁾ 더욱 그러하다. 동명왕이 烏伊와 扶芬奴로 하여금 태백산 동남쪽에 있던 荇人國을 정벌했음에서도 마찬가지이다.¹⁷⁾

이런 모순에 대한 접근은 조선후기에 태백산의 위치에 대한 재비정으로 나타났다. 이익(1681~1763)과 안정복(1712~1791)의 태백산에 대한 위치 비정이 그것이다. 이익은 태백산을 최치원이 언급한 발해의 태백산으로 설정하였다.¹⁸⁾ 이것은 그가 이해하고 있던 檀國의 중심이 요서와 요동

15) 『삼국사기』권46, 열전6, 최치원; 『삼국유사』권1, 기이2, 靺鞨渤海. 『삼국유사』가 전거로 들고 있는 자료는 『三國史』와 『新羅古記』이다.

16) 『후한서』권85,동이열전75, 挹婁; 『신당서』권219, 北狄列傳144, 渤海 및 黑水靺鞨. 백두산의 이명으로 보이는 도태산의 위치에 대해서는 현재의 백두산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김락기, 「5~6세기 勿吉의 중심지와 徒太山」, 『한국고대사연구』53, 2009).

17) 『삼국사기』권13, 고구려본기1, 동명성왕 1년 10월

18) 『성호선생전집』권26, 「答安百順」 “... 檀君要是與唐虞並世 舜是東夷人則均爲太平之人矣 聖神首出 必將聲聞邇密 檀是香樹 故後人以妙香爲始降之地 而舊史云神人降太白山神檀樹下 生子曰檀君 按崔致遠書 渤海北依太白山下 則山在遼地 其說皆未可信 ...”. 물론 이익은 이를 믿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그 비판의 중심은 단군전승 자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其說皆未可信’ 역시 최치원 설을 포함하고 있지만, 안정복은 이에 근거하여 태백산을 백두산으로 비정하고 있다.

을 아우른 요하와 심양, 즉 ‘遼瀋’이었다는데서 근거한다. 遼地에서 고조선의 출발지인 태백산을 비정할 필요가 대두된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익은 태백산을 백두산으로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¹⁹⁾ 그의 태백산에 대한 재인식은 그 제자인 안정복이 백두산으로 비정함으로써 보다 구체성을 가지게 된다.

A-1. … 蓋馬大山은 바로 지금의 백두산이다.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하면, 고구려 초기에 蓋馬國이 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개마대산이라 칭한 것이다. … 『한서』 지리지에 西蓋馬縣이 있는데, 그 산의 서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한 것이다. 또 “서개마현에 馬訖水가 있는데, 곧 후일의 압록강으로 그 水源이 백두산에서 나온다”고 했으니, 개마대산이 백두산이란 것은 의심할 나위없다. 曹魏 때에는 不咸山이라 칭했으니, 『삼국지』 「挹婁傳」에 “挹婁는 불함산 북쪽에 있다”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隋·唐시대에는 白山이라 칭했으니, 『통전』 「勿吉傳」에 “白山部落이 있다”고 했고, 또 압록강 수원이 동북말갈의 백산에서 나온다”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또 太白山이라고도 칭했으니, 『문헌통고』 「渤海傳」에 “武后 때 말갈의 乞四比羽와 고구려의 餘種이 동쪽으로 도망하여 遼水를 건너 태백산 동북쪽을 확보하고 奧婁河를 막았다”고 하고, 또 『삼국사기』 「崔致遠傳」에 “고구려의 殘孽이 태백산 밑에 웅거하여 국호를 渤海라 했다”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 중국 사람들은 長白山이라 칭하니, 『성경지』에 이른바 ‘장백산’이란 것이 바로 그것이다. 백두산이란 이름은 곧 우리나라 사람들이 칭한 것이다. … (『동사강목』 부록 하권, 蓋馬大山考)

A-2. 『삼국유사』에 “太伯山은 지금의 妙香山[지금의 寧邊府에 있다]이다”고 했는데, 『고려사』 지리지와 『여지승람』에서는 모두 그 설을 따랐다. 태백산이 묘향으로 변한 것은 어느 때에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우리나라 모든 산 이름은 대부분 중들이 지었으니

19) 김성환, 「星湖 李瀛의 檀君論」 『성호학보』6, 2011.

묘향이란 이름 또한 佛家の 문자이리라. 李牧隱의 「妙香山記」에 “산은 압록강 남쪽에 있는데, 遼地와 경계가 되고 長白山의 分脉이다. 그 산에는 향나무가 많다”고 했다. 그렇다면 묘향산이란 이름은 향나무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리라. 단군이 태백산 檀木 아래에 하강하였고 ‘檀’은 바로 향나무인 까닭에 後人들이 그 임금을 단군이라 칭하고, 그 산을 묘향이라 부른 것이 아닐까? 『삼국사기』 崔致遠傳에 있는 太師에게 올린 狀에 “고구려의 殘民이 북쪽 태백산 아래에 의거하고 국호를 渤海라 했다”고 했다. 여기서 말한 태백산은 지금의 白頭山을 가리킨 것이요, 위에 말한 장백산이 바로 그것인데 단군이 하강했던 지역이다(『동사강목』 부록 하권, 太伯山考).

발해의 출자 지역으로 최치원이 언급한 태백산에 주목하여 고조선의 출자지 태백산과 연계시킨 이익의 학설을 안정복은 백두산으로 구체화시켰다. 자료 A-1·2의 「蓋馬大山考」·「太伯山考」에서 서술 순서에서의 차이는 있지만, “『삼국사기』 최치원전에 있는 태사에게 올린 狀에 ‘고구려의 殘民이 북쪽 태백산 아래에 의거하고 국호를 발해라 했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한 태백산은 지금의 백두산을 가리킨 것이요, 위에 말한 장백산이 바로 그것인데 단군이 하강했던 지역”이라는 서술이 바로 그것이다. 이익과 안정복의 태백산 위치에 대한 재비정은 17~18세기 자국 역사의 시원으로서 고조선에 대한 역사인식의 확대와 그 영역으로서 ‘요심’에 대한 관심의 결과였다. 이를 수용하여 태백산을 묘향산보다 백두산으로 비정할 때, 고조선 건국신화와 교섭이 이루어진 고구려 건국신화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체계적인 인식을 도모할 수 있다. 환웅·웅녀와 관련된 태백산과 해모수와 관련된 태백산·웅심산(웅신산)·웅심연·우발수 등의 상관관계, 두 건국신화의 전승 관계 역시 이제까지의 논의보다 깊이 있게 진전시킬 수 있다. 이점은 부자 관계로 설정되어 전하는 단군과 주몽 전승에 대한 논의에서 보다 상세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Ⅲ. 부여계 건국신화에서의 단군과 부루·주몽의 혈연관계

夫婁와 朱蒙은 단군의 아들이라는 전승이 있다. 물론 역사적 사실을 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승이 형성된 시기에 부여와 고구려가 역사적으로 고조선을 계승했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단적으로 표현한 기록임에는 분명하다. 고구려 당대에 이 같은 인식이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런 전승은 고조선에 대한 인식이 우리 역사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부터 전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단군과 주몽이 혈연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인식 자체가 고조선과 고구려의 역사적 계승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고구려의 고조선·단군의 계승성에 대한 중요한 논거 중에서 하나는 ‘선인’과 단군의 관련성에 있다. 졸본 지역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비류국 송양과 다투던 주몽은 자신이 천제의 손자이자 西國의 왕임을 내세워 선인의 후손임을 자처하던 송양에게 고구려에 항복할 것을 통첩했다. 그리고 “과인은 천제의 뒤를 이었지만 지금 왕은 神의 자손도 아니면서 억지로 왕을 칭하니, 만일 내게 복종하지 않으면 하늘이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했다.²⁰⁾ 주몽이 송양에게 항복할 것을 내세운 명분은 자신은 천제의 후손인데 비해 송양은 신의 자손도 아니라는 것이었다. 선인의 후손을 표방한 송양보다 천제 자손인 자신에게 정권의 정통성이 있다는 신성성을 내세운 것이다. 이 같은 「동명왕편」의 기록은 『구삼국사』에 근거하였다.

그런데 이승휴는 「동명왕편」의 이 기록에 대해 『제왕운기』에서 「동명본기」를 인용하면서 “나는 선인의 후손으로 여러 대에 걸쳐 왕이 되었다”는 송양의 말을 보다 확장하여 “비류왕 송양 역시 단군의 후손이 아닐까

20) 『동국이상국전집』권3, 고을시, 동명왕편

한다”는 견해를²¹⁾ 밝히고 있다. 송양이 단군의 후손이라는 것은 이전부터 전해져온 전승이 아니라 평양 지역에서의 ‘선인왕검’이라는 기록에²²⁾ 기대어 『동명본기』의 선인을 단군의 후손으로 추측한 이승휴에게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리고 최근에 이를 더욱 확대하여 ‘송양’=‘단군의 후손’이라는 이해의 전제 아래 송양이 계루부 이전에 고구려 왕실을 구성했고 이후에도 일정기간 왕실과 독립된 별도의 제사권을 지니고 있던 연노부[소노부]와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구려에서 고조선의 역사계승성 내지 단군인식을 살펴보는 논거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²³⁾

그러나 이 견해들은 『삼국유사』의 “주몽은 단군의 아들”이라는 기록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논의 자체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라는 『삼국유사』의 기록은 단정적이다. 특히 『삼국유사』의 이 기록에서는 다른 곳에서 일반적인 이해는 아니지만 일설에는 그렇다는 의미로 사용된 ‘亦云’·‘一作’·‘或作’·‘或云’ 등의 용례도 보이지 않는다. 일연은 주몽을 ‘壇君之子’라고 단언함으로써 확신성을 주고 있다. 이런 점에 고조선과 고구려 역사계승의 문제는 부자로 설정되고 있는 단군과 주몽의 관계에서 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논점이 『삼국유사』의 해당 기록을 배제하고 이승휴의 추론에 기대어 진행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B-1. 東明王 - 갑신년에 즉위하여 8년을 다스렸다. 성은 高氏이고, 이름

21) 『제왕운기』권하, 동국군왕개국연대, 한사군급열국기 “東明本紀曰 沸流王松讓謂曰 子以仙人之後 累世爲王 今君造國日淺 爲我附庸可乎 則此亦疑檀君之後也”.

22) 『삼국사기』권17, 고구려본기5, 동천왕 21년

23) 조법중, 앞의 논문, 2001·2005a·2005b 참조. 특히 그는 단군신화를 衛滿系에게 축출된 準王系의 시조신화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송양 집단은 이 같은 인식을 함께 보유한 준왕계의 방계 또는 그 예측세력으로 추측하고 있다(조법중, 위의 논문, 2001, 208쪽).

은 朱蒙이며, 鄒蒙이라고도 한다. 檀君의 아들이다(『삼국유사』권1, 王曆).

B-2. 『檀君記』에 이르기를 “[檀: 필자 주]君이 西河 하백의 딸과 상관하여 아이를 낳으니 이름을 부루라고 하였다”고 했다. 지금 이 기록을 보면 해모수가 하백의 딸과 관계하여 뒤에 주몽을 낳았다고 했다. 『단군기』에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부루”라고 했으니 부루와 주몽은 異母兄弟일 것이다(『삼국유사』권1, 기이2, 고구려).

C. 『檀君本紀』에 이르기를 “非西岬 河伯의 딸과 혼인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이 夫婁이다”라고 했다(『제왕운기』권하, 동국군왕개국연대, 한사군급열국기).

단군의 후계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다. 부루나 주몽, 또는 그들 모두를 혈연적으로 단군의 아들로 설정하고 있는 『단군기』와 『단군본기』, 『삼국유사』 「왕력」의 존재에서 그렇다. 『단군기』와 『단군본기』의 성격이나 저술 시기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지만, 이들은 고려 전기에 仙家나 도참과 관련하여 저술된 것으로 짐작된다.²⁴⁾

그런데 단군과 주몽이 부자 관계로 설정된 전승의 형성 시기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왕력」의 해당 기록을 존중하여 이 전승이 「왕력」의 저술 이전부터 전해오고 있었고, 그것을 「왕력」에서 채록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었다는 전승은 부루가 단군의 아들이었다는 전승보다 그 이해 범위가 좁았다고 보인다.²⁵⁾ 단군→부루의 전승이 하백의 딸과의 관계에서 『단군기』와 『단군본

24) 김성환, 「檀君傳承과 檀君墓-고려시대 단군묘 전승의 가능성 모색-」, 『역사민속학』24, 2008; 『朝鮮時代 檀君墓 認識』, 경인문화사, 2009.

25)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또 다른 자료인 『檀君古記』를 인용하여 『제왕운기』 수준의 건국신화를 소개하며 단군과 부루의 관계를 서술하고 있는 것(『세종실록』권154, 평안도, 평양부) 또한 마찬가지이다.

기』에 수록되고 있음에 비해 단군→주몽의 전승은 「왕력」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자가 단군을 표제한 독립된 자료를 전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것은 보다 확대하여 고조선→부여[북부여·동부여]로 이어지는 역사계승의식의 또 다른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²⁶⁾

두 번째는 단군→주몽의 전승이 일연에 의해 비로소 창안된 추론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단군이 하백의 딸과 상관하여 부루를 낳았다는 『단군기』의 기록과 해모수가 하백의 딸과 관계하여 주몽을 낳았다는 『國史』 「高麗本紀」의 기록에 대한 모순을 하백의 딸을 매개로 「부루와 주몽은 異母兄弟일 것」이라는 일연의 추론에서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할 때, 주몽을 단군의 아들로 설정한 「왕력」의 기록은 이런 자신의 추론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두 가지의 가능성 중에서 어느 쪽이 사실에 가까운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특히 「왕력」은²⁷⁾ 일연이 『삼국유사』를 편찬하기에 앞서 독립적으로 저술한 것이라거나,²⁸⁾ 『삼국유사』 편찬 이후 전래 과정에서 함께 製冊되었다는 견해도 있고 보면,²⁹⁾ 더욱 그러하다.³⁰⁾ 그러면서도 한 가지 유의해

26)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성환, 앞의 논문, 2008. 「왕력」의 기록이 전거를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폭넓은 이해가 있었을 수도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것은 전거를 밝히지 않고 있는 「왕력」의 특성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보인다.

27) 이기백, 「『三國遺事』 王曆條의 檢討」, 『역사학보』107, 1985.

28) 채상식, 「至元 15년(1278) 仁興寺刊 『歷代年表』와 『三國遺事』」, 『高麗史의 諸問題』, 삼영사, 1986; 「一然」, 『韓國史市民講義』2, 일조각, 1988.

29) 김상현, 「『三國遺事』 王曆篇의 檢討-王曆 撰者에 대한 疑問-」, 『東洋學』15, 1985; 이근직, 「『三國遺事』 王曆의 편찬 성격과 시기」, 『한국사연구』101, 1998.

30) 최근 『삼국유사』의 왕력과 기이편에서 부루와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라는 「단군기」 기록은 『삼국유사』 내부의 유기적 서술 맥락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의미 있는 공유점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출되었다. 이강래, 「『삼국유사』 편찬의 유기성 문제」, 『역사학연구』10, 2010, 27~29쪽.

야할 점은 해모수 전승을 소개하고 있는 「동명왕편」의 기록이 『구삼국사』에 토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삼국사』가 고려전기의 관찬 역사편찬의 결과물이라고 할 때, 비록 해모수가 등장하는 신화가 다른 고구려 건국신화와 비교하여 후대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동명왕편」의 기록은 고구려 건국신화에 대한 고려 왕실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시 환기해야 할 점은 앞서 검토한 고조선 건국신화와 고구려 건국신화가 태백산이라는 장소에서 공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두 신화는 태백산이라는 같은 장소에서 상호 교섭하고, 습합되면서 전래되었을 것이다. 곶을 표제하는 ‘웅심산[웅신산]’·‘웅심연’은 그 결과였다. 해모수 전승이 단군 전승의 또 다른 변용이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가 천제³¹⁾ 또는 천제의 아들로³²⁾ 상징되어 백여 인을 거느린 가운데 오룡거를 타고 지상에 내려오는 과정은 흡사 천부인 3개와 무리 3천을 거느리고 태백산에 내려왔다는 환웅을 연상하게 한다.

부루와 주몽을 형제 관계로 이어주는 매개는 하백의 딸이다. 하백의 딸은 단군과의 관계에서 부루를 낳았고, 해모수와의 관계에서 주몽을 낳았다. 그런데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해모수와 관계한 하백의 딸은 柳花라고 그 이름이 밝혀져 있지만, 단군과 관계에서의 하백의 딸은 그렇지 못하다. 단군과 해모수, 두 존재와 관계된 하백의 딸을 동일 존재로 파악해야 하는가의 고민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또 부루와 주몽이 각기 동부여·고구려 시조의 위치에 있지만, 또 다른 전승은 양자의 관계가 의제적인 조손 관계로 설정되어 있다.

- D. 「동명왕: 필자주」본기에 이르기를 “夫餘王 解夫婁가 … 금빛 나는 개구리 형상의 작은 아이를 … 길러서 金蛙라 하고 태자로 삼았다.

31) 주 20)과 같음.

32) 『삼국유사』권1, 기이2, 고구려 및 북부여

정승 阿蘭弗이 말하기를 ‘일전에 天帝가 제게 내려와서 장차 내 자손으로 하여금 이곳에 나라를 세우려 하니 너는 피하라. 동해 가에 迦葉原이란 땅이 있는데 오곡이 잘 되니 도읍할 만하다’라고 했습니다. 아란불은 왕을 권하여 옮겨 도읍하고 東夫餘라 했다. 예전 도읍터에는 解慕漱가 천제의 아들이 되어 와서 도읍하였다”고 했다(『동국이상국전집』권3, 고을시, 동명왕편).³³⁾

『구삼국사』에서의 「동명왕본기」로 보이는 자료에서 해모수와 해부루는 모두 ‘解’를 관칭하고 있지만, 부자 관계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부여에서 왕실 세력의 교체를 추측할 수 있을 수준의 기록을 전하고 있다. 천제의 아들 해모수가 부여에 도읍하고, 부여왕 해부루는 이에 동부여로 옮겨갔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해부루의 아들은 금와였다. 해모수와 해부루는 부여라는 넓은 범위에서 동일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를 북·동으로 세분할 때는 그렇지 않다. 상호 견제와 협력을 반복하던 집단이었고, 결국에 둘로 분화된 집단이었다.

이와 달리 『삼국유사』에서의 해모수·해부루·금와·주몽을 둘러싼 관계는 좀 더 중층적이다.

E-1. 『고기』에 이르기를 “前漢 宣帝 神爵 3년 임술 4월 8일 天帝가 五龍車를 타고 訖升骨城에 내려왔다[大遼 醫州 경계에 있다]. 도읍을 세우고 왕이라 일컬으며 나라 이름을 北扶餘라고 했다. 스스로를 解慕漱라고 했는데, 아들을 낳아 이름을 扶婁라고 하고 解로서 성씨를 삼았다. 그후 왕(부루: 필자 주)은 上帝의 명에 따라 도읍을 동부여로 옮기고, 東明帝가 북부여를 이어 일어나 卒本州에 도읍을 세우고 卒本扶餘가 되었으니, 즉 고구려의 시조이다”라고 했다(『삼국유사』권1, 기이2, 북부여).

33) 같은 내용이 『제왕운기』에서도 보이는데, 해모수가 ‘日者’로 바뀌어 있을 뿐이다. 『제왕운기』권하, 동국군왕개국연대, 한사군급열국기.

E-2. 北扶餘王 解夫妻의 신하 阿蘭弗의 꿈에 天帝가 내려와 말하기를 “장차 내 자손으로 하여금 이곳에 나라를 세우고자 하니 너는 이를 피하여[東明이 장차 일어날 조짐을 이른다] 동해의 해변에 迦葉原이란 땅이 있으니 토양이 기름져서 마땅히 王都를 삼을만하다”라고 했다. 아란불이 왕에게 권하여 도움을 그곳으로 옮기게 하고 나라 이름을 東扶餘라고 하였다(『삼국유사』권1, 기이2, 동부여).

E-3. … 『國史』 「高麗本紀」에 이르기를 “시조 東明聖帝의 성은 高氏이고諱는 朱蒙이다. 처음에 北扶餘王 解夫妻가 이미 東扶餘로 자리를 피하였고, 부루가 죽자 金蛙가 왕위를 이었다. 이때 太伯山の 남쪽 優渤水에서 한 여자를 얻어 그 까닭을 물으니 말하기를 ‘나는 본래 河伯의 딸로 이름은 柳花입니다. 여러 동생과 함께 나와 놀던 중 한 남자가 스스로 天帝의 아들 解慕漱’라고 하며 나를 유혹하여 熊神山 아래 鴨綠의 강가 망 속에서 알게 되고는 가서 돌아오지 않았습시다”라고 했다(『삼국유사』권1, 기이2, 고구려).

자료 E-1은 ① 천제 해모수의 북부여 건국 → ② 상제의 명에 따른 아들 해부루의 동부여 천도 → ③ 북부여에서 東明帝의 발흥 → ④ 졸본부여에서 동명의 고구려 건국으로, 북부여→동부여·고구려로의 과정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북부여 시조인 천제 해모수와 고구려 시조인 동명의 관계는 연결되지 않는다. 부여 세력이 부여[북부여]에서 동부여·졸본부여로 분화하는 과정을 담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동명의 선계는 천제 해모수가 아닌 상제에 연결되고 있다.

자료 E-1. 「북부여」에서의 해부루와 동명의 관계

천제 해모수의 북부여 건국 → 아들 해부루의 동부여 천도
북부여에서 상제의 건국 조짐 → 졸본부여에서 동명의 고구려 건국

자료 E-2에서는 해부루와 주몽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지 않

지만, 자료 E-1에서 고구려의 건국 조짐을 표명했던 상제가 천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것은 천제를 해모수로 연상하게 함에 따라 자료 E-1에서의 내용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상제가 소멸되고 그 자리를 천제가 대신하게 되면서 부자로 설정되어 있던 천제 해모수·동명과 해부루가 적대적인 갈등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 E-2. 「동부여」에서의 해부루와 동명의 관계

북부여왕 해부루의 동부여로 천도
↳ 천제[해모수]가 동명의 건국에 대한 계시

자료 E-3에서 이들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지면서도 구체적으로 정리되고 있다. 북부여왕인 해부루가 천제의 아들 해모수의 계시로 동부여로 옮겨가고 왕위를 금와가 이은데 비해, 해모수는 하백의 딸인 유화와의 관계에서 주몽을 출생하고 있다. 『삼국유사』의 「북부여」·「동부여」에서 천제로 기록되었던 해모수가 천제의 아들로 설정되고, 해부루와 주몽과의 관계 역시 세대 차이를 벌려 의제적인 조손 관계로 설정되고 있다.

자료 E-3. 「고구려」에서의 해부루와 동명의 관계

북부여왕 해부루의 동부여 천도→금와의 왕위 계승→대소
↳천제의 건국 계시→천제의 아들 해모수 하강→해모수의 유화 사통
→금와의 유화 거듭→주몽의 출생

자료 E-1·2에서 천제로 설정된 해모수가 자료 E-3에서는 천제의 아들로, 자료 E-1에서 별개의 존재로 상정되었던 천제와 상제가 자료 E-3에서는 천제의 아들로 합해졌다. 또 자료 E-3에서는 해부루→금와→대소로 이어지는 동부여의 왕통과 별개로 천제→천제의 아들 해모수·하백의 딸

유화→주몽으로, 북부여에서 고구려로 이어지는 계승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자료 E-1·2의 기록보다 북부여·동부여·고구려를 둘러싼 계보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자료 E-3에 인용된 『국사』 「고려본기」가 자료 E-1에 인용된 『고기』보다 후대에 정리되면서 정제된 기록이었음을 보여준다.

5세기의 자료인 「광개토왕릉비」에서는 鄒牟王이 북부여에서 태어났고, 그 출자를 천제의 아들 또는 皇天의 아들이자 하백의 딸로 기록하고 있다.³⁴⁾ 「모두루묘지」에서도 鄒牟聖王의 출자에 대해 「광개토왕릉비」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단지 ‘天帝之子’·‘皇天之子’가 ‘日月之子’로 바뀌어 있을 뿐이다.³⁵⁾ 모두 자료 E-1의 자료와 계승구조가 같다. 이것은 『삼국유사』의 「북부여」조에 기록된 고구려 건국신화가 5세기 중엽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게 한다. 그런데 702년의 「泉男產墓誌銘」에서 이런 계보가 바뀌고 있는 양상을 엿볼 수 있다. 동명과 주몽이 별개의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³⁶⁾

君의 諱는 男産이니 遼東 朝鮮人이다. 옛날에 東明이 氣를 느끼고 瀝川을 넘어 나라를 열었고, 朱蒙은 해를 품고 溟水에 臨해 도읍을 열었다. 위엄이 해 뜨는 곳의 나무에 미치고 세력이 동쪽 지역의 풍속을 제압하여 비록 星辰과 바다와 산악이 변방지역에 걸려 있지 않았어도 예절과 詩書는 聲教에 통했으니 家를 잇고 氏를 받아 君은 그 후예가 되었다.³⁷⁾

34) 「廣開土王陵碑」(한국고대사회연구소,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1992) 참조.

35) 「牟頭婁墓誌」(한국고대사회연구소, 위의 책, 1992) 참조. 같은 시기에 편찬된 것으로 파악되는 『魏書』에는 주몽의 출자를 ‘日子 河伯外孫’으로 기록하고 있다. 『魏書』권100, 열전88, 고구려.

36) 부여계 동명신화의 전승과정에 대해서는 盧明鎬, 「百濟의 東明神話와 東明廟-東明神話의 재생성 현상과 관련하여-」, 『歷史學研究』10, 1981.

37) 「泉男產墓誌銘」 “君諱男産 遼東朝鮮人也 昔者東明感氣 踰瀝川而開國 朱蒙孕日 臨溟水而開都 威漸扶索之津 力制蟠桃之俗 雖星辰海嶽 莫繫於要荒 而組豆

여기서 동명과 비교하여 주몽은 일견 건국시조로서의 위상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동명의 ‘開國’과 주몽의 ‘開都’는 거의 같은 의미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동명은 부여의 건국, 주몽은 고구려의 건국과 관련한 시조였다. 즉 이 기록은 두 나라의 역사계승성을 의식한 서술이었다. 그리고 다른 고구려 건국신화의 내용을 염두에 둘 때, 『천남산묘지명』에서 보이는 계보는 천제→천제의 아들 해모수→동명→주몽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것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자료 E-3의 구조와 관련하여 논의할 수 있다. 즉 동명이자 주몽이 천손이라는 인식이다. 물론 『천남산묘지명』에서 고구려 당대에도 동명과 주몽을 다른 존재로 이해한 전승이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지만, 그들의 천손 인식도 이미 형성되어 있었음을 함께 전하고 있다. 따라서 자료 E-3의 전승은 5세기 중엽 이후 7세기 사이에 형성되었던 고구려 건국신화의 또 다른 갈래였다고 추측된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하백의 딸을 둘러싼 단군과 해모수의 관계에서 태어난 부루와 주몽에 있다. 자료 E-1에서는 해모수의 아들로 부루가 등장한다. 동명의 출계는 이와 달리 상제에 연결되어 있다. 자료 E-2에서는 해부루의 출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동명의 그것은 천제에서 비롯하고 있다. 반면 자료 E-3에서는 해부루의 출자에 대해 언급이 없지만, 주몽의 출자는 천제의 아들 해모수와 하백의 딸 유화에 직접 연결되고 있다. 앞의 자료들과 한 세대의 차이를 둔 구조였기 때문에 부루의 역할보다 그 아들인 금와가 해모수에게 버림받은 유화를 거듭으로써 주몽의 출생에 조력하고 있다. 금와는 주몽에게 의제적인 부자 관계가 되어 주몽은 해부루와 조손 관계를 형성한다. 또 이와 달리 『단군기』와 『단군본기』에서는 단군과 하백의 딸의 관계에서 부루가 출생했다고 한다.

이 같은 자료들에서 보이는 전승의 불합리한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할

詩書 有通於聲教 承家命氏 君其後也……”(한국고대사회연구소, 앞의 책, 1992).

수 있을까? 일연은 이미 단군과 서하 하백의 딸 사이에서 부루가 출생했다는 『단군기』의 기록과 『삼국유사』 「고구려」조에서 해모수와 하백의 딸 사이에서 주몽이 출생했다는 기록의 전거인 『국사』 「고려본기」의 내용이 모순됨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호 교섭하며 전해지던 고조선 건국 신화와 북부여·동부여·고구려 건국신화의 내용을 하백의 딸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그것은 부루와 주몽을 어머니인 하백의 딸을 중심으로 이모형제의 관계로 설정하게 했다. 그러면 착종되어 전하던 몇 개 나라의 건국신화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조선·북부여·동부여·고구려의 출계인식은 모두 하늘에 있었다. 그것은 제석·천제·상제로 대표되고, 각국의 시조들이 천신의 아들이거나 손자로 계보가 형성되었다. 구조적인 틀에서 건국신화의 일체성이다. 또 이들 신화들은 장소 문제에서도 태백산을 중심으로 하는 공유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환웅·단군·웅녀 등의 존재들은 후대의 해모수·하백의 딸·부루·주몽 등에게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면, 단군과 해모수는 동일 존재가 되지 못한다. 단군의 배우자로 등장하는 하백의 딸과 해모수의 배우자로 등장하는 하백의 딸 유희도 동일한 존재가 되지 못함은 물론이다. 태백산을 중심으로 하는 같은 지역에서 건국신화들이 교섭한 결과일 뿐이다. 고조선 건국신화에서 웅녀의 존재가 고구려 건국신화에서는 웅심산[웅신산]·웅심연 등 이미 해모수 집단의 근거지로 정착되어 해모수가 유희를 유인하여 사통한 곳으로 자리하고 있음은 이를 의미한다.

이런 신화의 교섭은 고조선 멸망 이후 북부여·동부여 건국신화에 반영되었고, 고구려 건국신화에도 이른 시기부터 융해되어 나타났다. 고구려의 시조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라는 『삼국유사』 「왕력」의 기록은 이런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왕력」이 기존 사서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

실들을 간략하게 정리한 자료라는 특성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점은 고구려의 고조선 역사계승의식의 측면에서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IV. 고구려 동맹에서 고조선 건국신화의 요소

앞서의 논의를 참고할 때, 고구려 건국신화에는 고조선 건국신화와 이후 변화된 제의적 양상을 포함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조선 건국신화에서 웅녀는 이후 신격화되어 모셔졌을 것인데, 웅심산[웅신산]·웅심연의 존재에서 그렇다. 『삼국유사』에서의 웅신산은 웅녀의 신격을 모신 것에서 유래하였을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고조선의 유민이자 단군의 후예로 추정되는 해모수가 하백의 딸을 유인한 곳인 웅심연 역시 해모수 세력의 근거지였음을 추측하게 한다. 아울러 시조신으로서의 단군과 熊神은 차이가 있었을 것이지만, 북부여·동부여에서도 모셔졌을 것이다. 그리고 해모수[日 또는 日子]의 후예를 자처한 주몽 집단³⁸⁾ 역시 마찬가지로 엮였을 것이다.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북부여와 동부여 신화에서 천제 또는 상제로 설정되었던 해모수가 『국사』 「동명본기」에서 천제의 아들로 재설정되어 환인→환웅·웅녀→단군으로 이어지는 고조선 건국신화의 3대 계보를 차용하여 천제→해모수·하백의 딸 유희→주몽으로 이어지는 계보로 정리되었을 가능성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이해의 양상들은 고구려 건국신화를 토대로 시조제의적 성격의 제천을 중심으로 매년 10월에 이루어진 동맹에서 의례를 통해 되풀이됨으

38) 5세기 자료인 「광개토왕릉비」와 「위서」 등에서 해모수와 주몽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광개토왕릉비」의 「日月之子」에서 「日」은 「해모수」와 어느 정도 상통할 수 있다.

로서 구성원들의 결속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였을 것이다.³⁹⁾ 동맹이 열릴 때 온 나라 사람들은 음주가무[飲食歌舞]하며 몇날며칠의 축제를 즐겼다고 한다. 특히 왕이 주재했을 동맹에서의 公會에 참석한 사람들은 수를 놓은 비단옷을 입고 금은으로 화려하게 꾸몄으며, 大加와 主簿는 머리에 뒷부분이 없는 幘을, 小加는 고깔과 비슷한 折風을 썼다고 한다. 또 도읍의 동쪽 물가의 隧穴이라는 큰 굴에서 隧神을 맞아 신좌에 木隧를 모시고 제사했고,⁴⁰⁾ 전쟁이 있을 때의 제천에서는 소를 잡아 발굽을 보고 길흉을 점쳤다고⁴¹⁾ 한다.

동맹의 명칭은 고구려를 포함한 범부여계의 시조로 나타나는 동명과 그 발음이나 자의에서 같은 의미였다고 보인다. 실제 『梁書』에서는 그 명칭을 동명으로 기록하고 있다.⁴²⁾ 이것은 고구려가 범부여계의 대표성을 띠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시조를 통해서나 하늘과 연결된 시조신 숭배를 통해서나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짐작된다. 같은 계열의 세력 관계에서 시조명의 확보는 절대 우위를 상징한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 고대사회의 제천의례로 알려져 있는 부여의 영고, 동예의 무천 등이 그 의례의 중심이자 특징으로 명칭이 기록되고 있음에 비해 고구려의 동맹은 그렇지 않음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범부여계의 시조 전승을 대표하는 신격을 모시는 의례를 통해, 더욱이 그 명칭이 동맹·동명이었음에서, 그 권위를 신성성에 의지하여 담보하려고 했기 때문이다.⁴³⁾ 3세기 중·후반에 편찬된 『위략』과⁴⁴⁾ 『삼국지』 동이전

39) 동맹의 성격과 기능 등 전반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서영대의 상세한 연구가 있다. 서영대, 「高句麗의 國家祭祀-東盟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120, 2003.

40) 『三國志』권30, 魏書30, 동이전, 고구려

41) 『翰苑』권30, 蕃夷部, 고구려

42) 『梁書』권54, 諸夷傳, 고구려 “... 以十月祭天大會 名曰東明 ...”

43) 趙宇然是 고구려의 동맹제 성격을 왕권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에서 확대하여 연맹세력의 결속을 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趙宇然, 『4-5세기 高句麗 國家祭祀와 佛敎信仰 研究』,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48-55쪽.

에 그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게 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미 이전부터 동맹은 고구려의 제천의례로, 동맹은 고구려가 범부여계를 대표하는 맹주로서 확고하게 자리하였음을 보여준다.

『구당서』와 『신당서』에는 동맹제에서 왕이 직접 제사하던 신격들이 거론되고 있다. 靈星神·日神·可汗神·箕子神·神隧가 그것이다.⁴⁵⁾ 여기서 神隧는 앞서 언급한 隧神임에 말할 것도 없고, 영성신·기자신은 신격의 성격이 분명하다. 그리고 일신은 5세기 고구려 금석문에 보이는 ‘천제’ 또는 ‘일월’로 해모수를 지칭하는 것으로 짐작된다.⁴⁶⁾ 그리고 가한신은 단군으로 접근이 가능하다.⁴⁷⁾ 동맹제에서 왕이 이들을 직접 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당서』 등에 음사로 규정되고 있는 것은 그 신격들이 고구려 고유의 것이었음에서 기인한다. 그렇다면 동맹에서는 고조선의 단군, 북부여의 해모수, 웅녀와 하백의 딸인 유희가 결합되었을 수신이 모두 제사되고 있는 셈이다.

물론 고구려 초기의 정치상황을 전하고 있는 “고구려왕은 본래 연노부에서 나왔으나 점차 미약해져 지금은 계루부에서 왕위를 차지하고 있다. … 연노부는 본래 國主였으나, 지금은 비록 왕이 되지 못하고 그 適統을 이은 大人이 古雛加的 칭호를 얻었으며, 종묘를 세우고 영성과 사직에게 따로 제사지낸다”는 『삼국지』의 기록은⁴⁸⁾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확대 해석하여 왕권과 견줄 수 있는 독립된 세력의 존재로 파악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모든 大加들도 스스로 使者·阜衣·先人을 두었지만, 그

44) 津田資久, 「魏略の基礎的研究」 『史朋』31, 北海島大, 1998; 윤용구, 「3세기 이전 中國史書에 나타난 韓國古代史像」 『韓國古代史研究』14, 1998.

45) 『구당서』권199상, 열전149상, 동이, 고려; 『신당서』권220, 열전145, 동이, 고려

46) 김성환, 「고려시대 평양의 단군전승」 『문화사학』10, 1998; 『高麗時代의 檀君傳承과 認識』, 경인문화사, 2002.

47) 한영우, 「高麗-朝鮮前期의 箕子認識」 『韓國文化』3, 1982, 22쪽; 서영대, 「檀君崇拜의 歷史」 『정신문화연구』32, 1992, 24쪽.

48) 『삼국지』권30, 위서30, 동이전, 高句麗

명단은 모두 왕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치 중국의 경이나 대부의 家臣과 같은 것으로, 회합할 때의 좌석 차례에선 왕가의 사자·조·선인과 같은 열에 앉지 못한다”는 후속 기록은⁴⁹⁾ 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고구려왕이 직접 거행한 동맹제는 천신을 중심으로 고조선·부여 계통의 신격을 아우른 시조신 또는 조상신을 모시는 의례로서 별도의 종묘와 영성·사직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도 함께 참여해야만 하였다. 이를 통해 고구려왕은 하늘과 연결된 왕권의 신성성과 정통성을 여러 세력들에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제고했을 것이다.

고구려고분벽화 중에서 5세기 중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천1호분의 벽화 중 수신승배와 수렵, 곰과 호랑이의 그림은 고구려의 제천의례인 동맹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⁵⁰⁾ 여기서는 이 견해를 수용하여 동맹제는 물론 거기에 용해되어 있었을 고조선 건국신화의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⁵¹⁾

이 벽화에서 중심이 되는 제제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나무를 모시는 모습이다. 나무를 향해 무릎을 꿇거나 서서 무언가를 비는 모습에서 『삼국유사』나 『제왕운기』의 神壇樹(神檀樹)를 연상할 수 있다.⁵²⁾ 고조선 건국신화의 다른 갈래를 전하고 있는 『제왕운기』에서 단군

49) 앞과 같음.

50) 최광식, 『고대 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1994, 148~153쪽; 리철, 「단군 관계 미술유산에 대한 고찰」 『단군과 단군조선』(이형구 엮음), 살림터, 1995, 230쪽.

51) 고구려고분벽화에서 곰을 제제로 한 그림은 약수리고분벽화, 각저총고분벽화에서도 확인된다. 각저총벽화에서 자색나무에 등을 대고 기대어 있는 곰과 호랑이는 고조선 건국신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접근되고 있다(주 1) 참조). 또 호랑이·사슴 등과 함께 사냥 대상으로 그려진 약수리고분벽화에서의 곰도 있지만, 이 글에서 논의의 중심은 고구려 東盟祭에서 고조선 건국신화와 관련한 내용의 검토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검토는 추후로 미룬다.

52) 김성환, 앞의 논문,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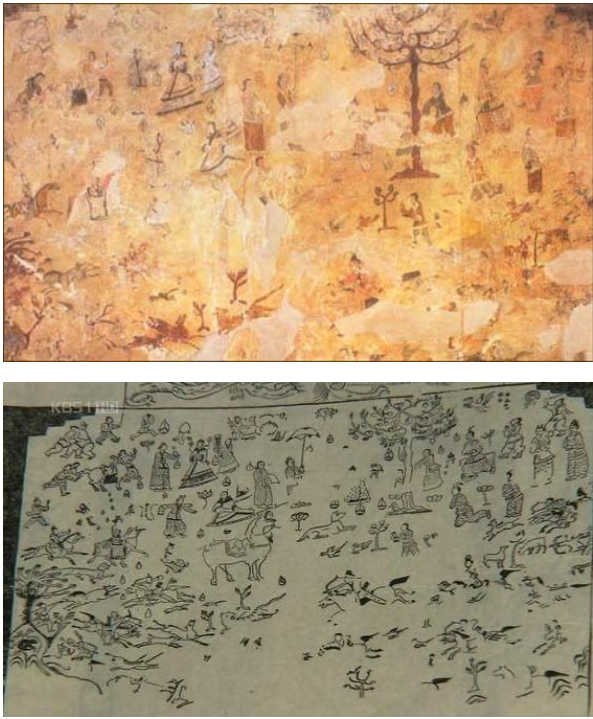


사진 1. 장천1호분 제의 장면 전체

의 부계가 나무신인 단수신으로 기록되어 있음은 고조선에서 수목숭배 신앙이 성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또 神壇樹 역시 神壇과 神樹의 결합으로 추측할 수 있어 이 그림의 모습과 부합된다. 『삼국지』에 의하면, 동맹제 때 공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수를 놓은 비단옷을 입고 금은으로 화려하게 꾸몄고 대가와 주부는 머리에 뒷부분이 없는 책을, 소가는 고깔과 비슷한 절풍을 썼다고 하는데, 이 역시 벽화에서 확인이 가능하다.⁵³⁾

53) 홍정민, 「고구려 고분벽화의 복식에 대한 연구-장천1호분·삼실총 벽화를 중심으로-」 『한복문화』4-3, 2001, 47~49쪽.

특히 화면 주변에는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기사의 수렵모습이 배치되고 있는데 비해, 중앙에는 종자가 딸려 있고 장식을 갖춘 큰 백마가 수목 숭배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사냥과는 달리 백마를 따르는 말들도 확인된다. 다른 말들에는 모두 사람이 타고 나뭇의 목적을 위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큰 백마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지만 말을 붙들고 있는 종자가 있음이 주목된다. 그 옆에는 현금을 연주하는 악사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 윗면에서는 씨름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다른 말에 비해 크게 그려져 안장을 갖추고 수목 숭배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백마는 동맹제를 주재하던 고구려왕을 그린 것으로 추측된다. 또 다른 말과 비교하여 이 말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음은 왕의 신성성과 권위 등을 이유로 그 모습을 의도적으로 그리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⁵⁴⁾

한편 『삼국지』에서는 동맹의 제천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가 도읍의 동쪽 물가에 있는 隧穴이라는 큰 굴에서 隧神을 맞아 제사하는 隧神祭임을 밝히고 있다. 물론 이 벽화에서 그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있는 단서는 없다. 하지만 수신의 형상을 나무로 만들어 신좌에

54) 이런 사례는 후대의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조선시대 각종 의궤나 행렬도에서 국왕의 모습은 그려지지 않았다. 권위와 존엄의 상징이었다. 한편 거란의 祭山儀에서도 神木 숭배가 확인된다. 『遼史』권49, 禮誌1, 吉儀, 「祭山儀」 “設天神·地祇位于木葉山 東鄉 中立君樹 前植羣樹 以像朝班 又偶植二樹 以爲神門 … 牲用赭白馬·玄牛·赤白羊 皆牡 僕臣曰旗鼓拽刺 殺牲體割 懸之君樹 太巫以酒酌牲 … 皇帝皇后詣天神·地祇位 致奠 閣門使讀祝 訖 復位坐 北府宰相及楊隱以次致奠于君樹 遍及羣樹 … 皇帝率孟父·仲父·季父之族 三匝神門樹 餘族七匝”. 거란 왕실은 “목엽산에서 봄가을로 산신제를 지냈는데, 중앙에 君樹를 세우고 앞에는 群樹를 심어 朝班을 상징하도록 하며, 모퉁이에는 나무 두 그루를 심어 神門으로 삼게 한다거나, 황제와 황후가 천신과 지기의 신위 앞에 나아가 致奠하고 北府宰相과 楊隱이 차례로 君樹에 치전하고 群樹에도 두루 치전한다는 내용, 皇帝가 孟父·仲父·季父 등 친족을 거느리고 神門樹를 3차례 돌고 나머지 친족은 7차례 돈다”는 의식을 거행했다.



사진 2. 장천1호분 제의 중 수목 숭배

모셨다는 것 역시 수목숭배사상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조선의 수목숭배사상은 고구려에 계승되어 동맹제의에서 주요 의례로 구성되었을 것이라는 데까지 논의를 확장할 수 있다.

벽화의 왼쪽 하단에는 동굴을 상징하는 나무뿌리 밑에 곰이 앞발로 무언가를 쥐고 웅크리고 있는 그림이 있다. 그리고 바로 옆 바깥에는 화살을 맞은 호랑이가 말을 타고 사냥하는 사람에게 쫓기는 그림이 있다. 이 역시 『삼국유사』에서의 곰과 호랑이를 연상하게 한다. 곰이 있는 곳의 나무와 굴은 神樹와 神壇이었을 것이며, 여기서 곰은 『삼국유사』의 기록과 같이 삼칠일을 기한 후 웅녀로 변했을 것이다.⁵⁵⁾ 하지만 호랑이는 이를 참지 못하여 신격의 위치에서 탈락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 그림이 벽화의 중심부에서 떨어져 배치된 것은 동맹제의 때 주신격으로서의 천신과

55) 하남 낙양시 전한묘 벽화에서 음연도 중의 흑웅과 원대자묘 벽화에서의 흑웅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전연시대의 고분벽화에서도 곰의 존재가 확인되는데, 이것은 길상과 벽사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매우 해학적인 모습이다. 고구려고분벽화에서 확인되는 곰의 모습과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서울대학교박물관, 『2000년전 우리이웃-중국 요령지역의 벽화와 문물』, 2001, 46~47쪽).

달리 모셔졌던 수신의 역할과 비교할 수 있다.

물론 동예에서 虎神 숭배에 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⁵⁶⁾ 그리고 『삼국지』의 「예전」 앞부분에서 기자의 팔조지교를 언급함으로써 동예 역시 고조선의 문화권에 포함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⁵⁷⁾ 호신 숭배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고조선 건국신화에서 호랑이가 신격에서 탈락하고 있음은 이미 이른 시기에 동예가 그 문화권에서 떨어져 나가 호신을 중심으로 하는 별도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음을 뜻한다.⁵⁸⁾ 산천을 중시하여 이를 토대로 각각의 부분이 나뉘어 서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동예의 풍속 역시 참고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구려의 동맹에서는 제천을 중심으로 영성신·일신·가한신·기자신·수신 등 여러 신격이 제사되었다. 그런데 『삼국지』를 비롯한 여러 기록을 살펴볼 때, 제천 다음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제의는 수신제였다. 이것은 천신과 지모신의 제사를 병행함으로써 국왕 및 왕실의 신성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였다. 그것은 동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삼국지』에서 동예의 무천을 서술하면서 호신 숭배를 먼저 언급하고 무천을 뒤에 기록함으로써 그 중요도에서의 차이를 염두에 둘 수 있지만, 그 구조는 천신에 대한 제사[무천]와 지모신에 대한 제사인 호신 숭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제천의례에 대한 구조는 부여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영고의 제사 대상은 제천과 지모신 성격의 하백녀로 이루어져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전통은 고조선의 천신 숭배와 함께 옹녀로 대표되는 지모신 성격의 熊神 숭배를 이은 것이라고 보인다.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면, 장천1호분 벽화에서 호랑이가 사냥의 대상으

56) 동예의 虎神 숭배에 대해서는 서영대, 「東濊社會의 虎神崇拜에 대하여」 『역사민속학』2, 1992; 문창로, 「東濊 邑落社會의 虎神崇拜」 『韓國學論叢』30, 2008.

57) 『삼국지』권30, 魏書30, 동이전, 濊

58) 虎神 숭배와 함께 별도의 제천행사인 舞天이 행해지고 있음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가능하다(『삼국지』권30, 魏書30, 동이전, 濊).



사진 3. 장천1호분에서의 곰과 호랑이

로 그려지고 있음은 동예의 호신 숭배가 5세기 중엽 고구려 사회에서 이미 그 신격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아울러 이 벽화의 전체 구도에서 곰과 호랑이의 제재가 중심 화면에 위치하지 못하고 하단 왼쪽에 배치된 것 역시 일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것은 고구려 건국신화를 의례를 통해 재현하는 것이 동맹이라고 하였을 때, 거기에는 부여를 통해 이어져 온 고조선 건국신화의 내용들이 분명 차용되고 있었을 것이지만, 그 비중은 떨어진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천1호분의 벽화는 고구려의 동맹에 고조선 건국신화의 내용이 일정하게 투영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중심 내용이 건국신화의 재현을 통해 여러 구성원들의 결집에 있었고, 그 주재자가 왕이었다는 점에서 고조선→부여→고구려로 이어지는 역사성을 읽어낼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장천1호분의 벽화가 고구려의 동맹제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때, 고구려에서 진행되었던 시조묘와의 관계 역시 해명이 필요하다. 고구려에서 동명왕묘가 세워진 때는 20년(대무신왕 3)이다.⁵⁹⁾ 그리고 졸본에 있던 시조묘에 대한 제사는 167년(신대왕 3)부터 619년(영류왕 2)까지 8차례의 기

59) 『삼국사기』권14, 고구려본기2, 대무신왕 3년 2월

록이 확인된다.⁶⁰⁾ 동명왕묘와 시조묘가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여기서는 동맹의 개최시기가 10월임을 감안하여 9월에 이루어진 졸본에서의 시조묘 제사를 동맹과 관련하여 주목하고자 한다.⁶¹⁾

『삼국사기』에서 이와 관련한 사례는 167년(신대왕 3) · 180년(고국천왕 2) · 260년(중천왕 13) 3차례이다. 그런데 장천1호분의 조영 시기는 5세기 중엽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위의 9월 시조묘 제사의 사례는 장천1호분과 시기적으로 거리가 있다. 260년(중천왕 13) 9월 졸본의 시조묘 제사 이후 『삼국사기』에서 확인되는 고구려왕의 시조묘 제사는 332년(고국원왕 2) 2월 · 521년(안장왕 3) 4월 · 560년(평원왕 2) 2월 · 619년(영류왕 2) 4월 4차례이다. 그런데 이들은 동맹의 개최시기인 10월과 일단 차이가 있어 검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시조묘 제사와 관련한 『삼국사기』의 기록은 특별한 의미성이 있는 것으로, 고구려 전시기에 걸쳐 진행된 시조묘 제사의 내용 전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⁶²⁾

60) 『삼국사기』권16, 고구려본기4, 신대왕 3년 9월 · 고국천왕 2년(180) 9월; 권17, 고구려본기5, 동천왕 2년(228) 2월 · 중천왕 13년(260) 9월; 권18, 고구려본기6, 고국원왕 2년(332) 2월; 권19, 고구려본기7, 안장왕 3년(521) 4월 · 평원왕 2년(560) 2월; 권20, 고구려본기8, 영류왕 2년(619) 4월; 권32, 잡지1, 제사

61) 동맹과 시조묘의 관계에 대해 서영대는 천신과 시조를 동일선상에서 이해하고 있던 고구려의 입장에서 볼 때 시조에 대한 제사가 제천일 수 있고, 의례의 강조점은 천신과 시조의 관련성 과시에 있었기 때문에 의례의 전체 과정에서 시조에 대한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맹과 시조묘는 연계되어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서영대, 2003, 앞의 논문, 15~20쪽. 또 『北史』의 “...多淫祠 有神廟二所 一曰夫餘神 刻木作婦人像 一曰高登神 云是其始祖夫餘神之子 並置官司 遣人守護 蓋河伯女朱蒙云...”(『北史』권94, 열전82, 高句麗)를 참고할 때, 고구려에는 扶餘神과 高登神을 위한 별도의 神廟가 설치되어 있었다.

62) 고구려의 동맹과 시조묘 제사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 김두진, 「高句麗 初期 東明祭儀의 蘇塗信仰的 要素」 『韓國 古代의 建國神話와 祭儀』, 일조각, 1999; 강경구, 「高句麗 東明王廟의 成立過程」 『한국고대

이런 전제아래 『삼국사기』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260년(중천왕 13) 9월 이후 시조묘 제사가 이루어졌을만한 일로는 342년(고구원왕 12) 8월 왕이 환도성으로 이거한 일, 이듬해 7월 평양의 동황성으로 천도한 일, 371년 10월 소수림왕의 즉위, 384년 11월 고국양왕의 즉위, 391년(고국양왕 8) 3월 사직을 세우고 종묘를 수리한 일, 391년 5월 광개토왕의 즉위, 412년 10월 장수왕의 즉위, 427년(장수왕 16)의 평양 천도, 492년의 문자왕의 즉위, 519년 안장왕의 즉위, 531년 안원왕의 즉위⁶³⁾ 등이 있다. 이 줄본에서의 시조묘 제사는 확인되지 않지만, 시조묘 제사가 왕의 즉위를 조상신에게 고하고 건국신화를 의례를 통해 재연함으로써 천신의 후예임을 천명하여 신성성을 확인하려는 의도와 천도 등 국가의 중대한 사건을 고하는 목적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에도 시조묘 제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장천1호분의 조성 시기와 관련하여 추측할 때,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는 391년 광개토왕, 412년 장수왕의 즉위, 427년 장수왕의 평양 천도, 492년의 문자왕의 즉위 정도이다. 특히 장천1호분이 왕릉은 아닐지라도 지배계층의 무덤이 분명하고, 집안시의 장군총과 광개토왕릉비가 있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광개토왕 때 북부여 방면의 지방관으로 활약하다가 장수왕 때 죽은 것으로 짐작되는 모두루의 무덤인 모두

사연구』18, 2000; 박승범, 「고구려의 국가제사」 『史學誌』34, 2001; 서영대, 앞의 논문, 2003; 박승범, 「祭儀를 통해서 본 高句麗의 正體性」 『高句麗研究』18, 2004; 윤성용, 「고구려 建國神話와 祭儀」 『한국고대사연구』39, 2005; 이정빈, 「고구려 東盟의 정치의례적 성격과 기능」 『한국고대사연구』41, 2006; 姜辰垣, 「高句麗 始祖廟 祭祀 研究」 『韓國史論』54, 2008; 조우연, 「고구려의 왕실 조상제사 4~5세기 시조 朱蒙의 위상과 의미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60, 2010.

63) 『삼국사기』권18, 고구려본기6, 고국원왕 12년 8월; 고국원왕 13년 7월, 소수림왕 1년 10월; 고국양왕 1년 11월; 고국양왕 8년 3월; 장수왕 1년 10월; 장수왕 16년; 권19, 고구려본기7, 문자왕 1년; 안장왕 1년; 안원왕 1년

루총과도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들 유적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광개토왕릉비가 414년 건립되었음을 고려할 때, 장천1호분에 그려진 동맹제의와 관련한 벽화는 412년 장수왕의 즉위 또는 427년 평양 천도와 관련한 시조묘 제사 및 동맹제에 참여했던 지배계층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고조선 건국신화와 관련한 여러 모티브들은 이 시기 고구려 왕실에서 이해하고 있던 고조선과 그 건국신화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V. 맺음말

고구려의 영역은 고조선의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곳의 고조선 유민들은 시대를 거듭하면서 약화·쇠퇴의 과정을 겪었지만, 고조선 건국신화의 전통을 이어갔을 것이다. 그것은 부여 역시 마찬가지였다. 고구려 건국 이후 주몽, 동명의 시조인식이 정립되어 가면서 그 집단들은 고구려에 동화되었고, 고조선 건국신화 역시 고구려 건국신화에 용해되었을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인의 후손임을 자처했던 비류국의 송양 집단도 그중 하나였다. 태백산을 중심으로 고조선과 고구려 건국신화가 장소의 공유성을 가진다는 점은 주목되어야 한다.

고구려 시조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라는 『삼국유사』 「왕력」의 기록은 고조선과 고구려의 역사계승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또 『삼국유사』 소재 『단군기』와 『제왕운기』 소재 『단군본기』에서 단군과 부루·주몽의 관계 역시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5세기의 「광개토왕릉비」, 8세기 초의 「천남산묘지명」, 『국사』의 「고려본기」, 『삼국유사』 소재의 『고기』와 『단군기』, 『제왕운기』 소재의 『단군본기』 등에 전하는 단

군과 주몽에 대한 출자전승은 시간성을 가지며 상호 교섭하고 있으며, 고조선과 고구려를 이어주는 역사계승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결과가 나타났다. 즉 고조선과 고구려의 역사계승성은 각 신화들의 다양한 버전을 시간성과 장소성을 염두에 두면서 읽는 가운데서 밝혀질 수 있다.

고조선과 고구려의 역사계승성 문제에서 『제왕운기』에 전거하여 ‘선인’의 후예임을 자처했던 비류국 송양만을 단군과 연결시키기보다 범부여계·고구려계를 아우르는 인식론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라는 『삼국유사』 「왕력」의 기록은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송양 집단을 고구려에서 계루부 이전의 왕족인 연노부와 직접 연결시키려는 논의는 보다 큰 틀에서 접근되어야 한다.⁶⁴⁾

특히 웅심산[웅신산]과 주몽의 관계는 단군과 해모수가 직접 관련된

64) 비류국과 연노부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측면에서의 논의에서 주된 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묘제이다. 부여의 중심 묘제가 토광묘였는데 비해, 압록강 유역의 중심 묘제는 적석묘였다는 것이다. 부여 계통의 주몽 집단=토광묘, 비류국 송양 집단=적석묘라는 이해이다. 비류국을 포함한 압록강 유역에 제 세력들의 중심 묘제를 적석묘라고 할 때, 그들의 대부분은 송양이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선인의 후예였을 것이다. 그런데 부여 역시 부루가 단군의 아들로 설정되어 있는 것에서 드러나듯이 고조선의 유민들이었다. 그렇다면 부여 계통의 주몽 집단=토광묘, 비류국 송양 집단=적석묘라는 등식이 성립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점에 대해 주몽의 계루부가 정복자적 성격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적석총을 사용하는 토착 세력과 융화하면서 정착을 도모하였기 때문에 고분 양식의 단층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는 견해를 참고할 수 있다(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337쪽). 그런데 이 같은 고고학적 현상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는 부여의 별종으로 언어와 법, 풍속 등이 부여와 같은 점이 많았다는 『후한서』·『삼국지』의 기록을 고려할 때(『후한서』권 85,동이열전75, 고구려 및 『삼국지』권30, 魏書30, 동이전, 고구려. 특히 “무릎을 꿇고 절을 할 적에 한 쪽 다리는 펴서 끌며, 걸을 때는 모두 달음박질을 치듯 빨리 간다”는(『후한서』) 풍속의 유사성과 기질이나 의복의 차이성(『삼국지』에 대한 두 자료의 언급은 참고할 수 있다), 묘제를 중심으로 한 부여와 고구려의 풍속 구별은 좀 더 조심스럽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것으로, 비류국 송양과의 관련성에서 해석될 문제는 아니다. 해모수가 유화를 그곳으로 유인하였음은 웅심산이 해모수와 연고가 있는 장소였음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도 부루와 주몽이 단군의 아들로 설정되고 있는 배경을 유추할 수 있다. 또 고구려 초기의 왕계가 주몽[계루부], 유리계(해씨), 태조왕[계루부]으로 구분된다고 할 때, 단군은 유리계보다는 주몽 또는 태조왕계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 3세기 고구려의 제천례인 동맹이 『삼국지』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곳에 모셔진 隧神은 유화 이전에 그들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던 웅녀일 가능성과 웅녀의 신격에 유화의 그것이 덧씌워진 형태의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⁶⁵⁾ 고조선과 고구려의 건국 신화가 태백산이라는 장소의 공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5세기 중엽에 조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장천1호분의 벽화중에서 수목송배의 모습과 곰·호랑이가 그려져 있는 그림은 천신이자 조상신의 제의를 중심으로 지모신의 제의를 병행하였던 고구려 동맹제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추측된다. 수목송배의 모습은 천신, 곰의 모습은 지모신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목송배의 그림에서 다른 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고 우람하게 그려진 백마는 고구려왕이 동맹제를 주관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린 것이라고 짐작된다. 또 하단의 곰과 호랑이의 모습은 5세기 중엽 고구려에서 인식되고 있던 고조선 건국신화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동굴과 같은 나무 밑에서의 곰은 웅신의 신격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사냥 대상으로 그려진 호랑이는 이미 신격을 상실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장천1호분의 벽화를 412년 장수왕의 즉위 또는 427년 평양 천도와 관련한 시조묘 제사 및 동맹제에 참여한 인물과 관련한 것으로 추측하였다.

65) 또 자의적인 추론이지만, 태조의 어릴 때 이름이 ‘於濼’였다는 점은 해모수의 관련성에서 생각할 수 있다. 『삼국사기』권15, 고구려본기3, 太祖大王 “或云國祖王 諱宮 小名於濼 琉璃王子古鄒加再思之子也 母大后扶餘人也…”.

【참고 문헌】

1. 저서

-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1992.
金龍善 編著, 『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3.
최광식, 『고대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1994.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서울대학교박물관, 『2000년전 우리 이웃-중국 요령지역의 벽화와 문물』, 2001.
金成煥, 『高麗時代의 檀君傳承과 認識』, 경인문화사, 2002.
金成煥, 『朝鮮時代 檀君墓 認識』, 경인문화사, 2009.
趙宇然, 『4-5세기 高句麗 國家祭祀와 佛教信仰 研究』,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조민규, 『高句麗 太祖王의 出自와 桂婁部 王統의 成立過程』,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2. 연구 논문

- 盧明鎬, 「百濟의 東明神話와 東明廟-東明神話의 재생성 현상과 관련하여-」 『歷史學研究』10, 1981.
한영우, 「高麗~朝鮮前期의 箕子認識」 『韓國文化』3, 1982.
김상현, 「『三國遺事』 王曆篇의 檢討-王曆 撰者에 대한 疑問-」 『東洋學』15, 1985.
이기백, 「『三國遺事』 王曆條의 檢討」 『역사학보』107, 1985.
채상식, 「至元 15년(1278) 仁興寺刊 『歷代年表』와 『三國遺事』」 『高麗史의 諸問題』, 삼영사, 1986.
齊藤忠, 「集安角抵塚壁畫の熊と虎の畫」 『東アジア葬制の研究』 第一書房, 1987 ; 김진광 역, 「집안시 씨름무덤 벽화의 곰과 범 그림」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 민속원, 2009.
채상식, 「一然」 『韓國史市民講座』2, 일조각, 1988.
齊藤忠, 「角抵塚の角抵(相撲)・木・熊・虎とある畫面について」 『壁畫古墳の系譜』 第三章; 『日本考古學研究』2, 學生社, 1989.
서영대, 「東濊社會의 虎神崇拜에 대하여」 『역사민속학』2, 1992.
서영대, 「檀君崇拜의 歷史」 『정신문화연구』32, 1992.

- 노태돈, 「朱蒙의 出自傳承과 桂婁部の 起源」 『한국고대사논총』5, 1993.
- 리철, 「단군 관계 미술유산에 대한 고찰」 『단군과 단군조선』(이형구 엮음), 살림터, 1995.
- 강릉남, 「단군에 대한 고구려사람들의 이해와 숭배」 『력사과학』96-3, 1996.
- 김성환, 「고려시대 평양의 단군전승」 『문화사학』10, 1998.
- 윤용구, 「3세기 이전 中國史書에 나타난 韓國古代史像」 『韓國古代史研究』14, 1998.
- 이근직, 「『三國遺事』 王曆의 편찬 성격과 시기」 『한국사연구』101, 1998.
- 津田資久, 「魏略の基礎的研究」 『史朋』31, 北海島大, 1998.
- 김두진, 「高句麗 初期 東明祭儀의 蘇塗信仰의 要素」 『韓國 古代의 建國神話와 祭儀』, 일조각, 1999.
- 강경구, 「高句麗 東明王廟의 成立過程」 『한국고대사연구』18, 2000.
- 김성환, 「단군신화의 기원과 고구려의 전승」 『단군학연구』3, 2000.
- 박승범, 「고구려의 국가제사」 『史學誌』34, 2001.
- 홍정민, 「고구려 고분벽화의 복식에 대한 연구-장천1호분·삼실총 벽화를 중심으로-」 『한복문화』4-3, 2001.
- 조법중, 「고구려 사회의 檀君認識과 종교문화적 특성-蘇塗文化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21, 2001.
- 서영대, 「高句麗의 國家祭祀-東盟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120, 2003.
- 박승범, 「祭儀를 통해서 본 高句麗의 正體性」 『高句麗研究』18, 2004.
- 윤성용, 「고구려 建國神話와 祭儀」 『한국고대사연구』39, 2005.
- 조법중, 「한국 고대사회의 고조선·단군인식의 연구-고조선·고구려시기 단군인식의 계승성을 중심으로-」 『선사와 고대』23, 2005.
- 조법중, 「고구려 벽화고분에 나타난 단군 인식 검토-한국 고대 동물숭배전통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단군학연구』12, 2005.
- 이정민, 「고구려 東盟의 정치·례적 성격과 기능」 『한국고대사연구』41, 2006.
- 이귀숙, 「高句麗 初期의 王統變化와 朱蒙 始祖認識의 成立」 『歷史教育論叢』39, 2007.
- 姜辰垣, 「高句麗 始祖廟 祭祀 研究」 『韓國史論』54, 2008.
- 문창로, 「東濊 邑落社會의 虎神崇拜」 『韓國學論叢』30, 2008.
- 김성환, 「檀君傳承과 檀君墓-고려시대 단군묘 전승의 가능성 모색-」 『역사민속학』24, 2008.
- 김라기, 「5~6세기 勿吉의 중심지와 徒太山」 『한국고대사연구』53, 2009.

- 조우연, 「고구려의 왕실조상제사-4~5세기 시조 朱蒙의 위상과 의미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60, 2010.
- 최일례, 「고구려인의 관념에 보이는 단군신화의 투영 맥락」 『韓國思想과 文化』55, 2010.
- 김성환, 「星湖 李瀼의 檀君論」 『성호학보』6, 2011.

Abstract

Problems of Old Joseon Construction in Goguryeo's Mythos

Kim, Sung-hwan

When discussing the historical succession of Goguryeo and Old Joseon, one must recognize the fact that no concrete documentation about these events exists. Among wall paintings on Goguryeo's tombs, pictures dating from the early fifth century can be found which depict a bear and tiger leaning against a tree along with a drawing from the mid-fifth century found on Jangcheon tombs No. 1 showing a crouching bear under a tree. These pictures are related to motifs found in Old Joseon's mythos and discussed in *Samguk-yusa*. Also among *Samguk-sagi* imperial records of King Dongcheon dealing with the transfer of the capital to Pyeongyang lies the phrase "Pyeongyang is lived in Seon-in Wang-geom", in the late Goryeo record Jo Yeon-su's epitaph states "Pyeongyang's advent as Seon-in Wang-geom predated the Samhan era and lasted about one thousand years. He also became the Seon-in." These and others are understood to be records of Old Joseon's Tangun from the Goguryeo capital of Pyeongyang.

Song-yang, the king of Biryuguk, whose rule as the Seon-in successor spanning several generations, can be seen as the king of the region, especially when one compares the revelation in Dong-myeong of heaven's succession in *Gu-samguk-sa's Dongmyeonwang-bongi* as quoted by Yi

Gyu-bo(1168~1241) in *Dongmyeonwang-pyeon*. Recently, some scholars have used the records *Dongmyeonwang-pyeon* and *Jewang-ungi* as a basis for discussing the problems of historical succession in Old Joseon and Goguryeo, interpreting them to show Biryuguk's Song-yang as the Seon-in successor related to Jeolro-bu in Goguryeo. This theory, however, reveals a fatal historical contradiction when set against the move south from Buyeo of various forces from that tribe as well as the concept of Old Joseon's descendents, which are designated as Seon-in. In addition, belief in this theory requires overlooking the *Samguk-yusa* record definitively describing Jumong as Tangun's son.

Using this understanding of the records as its premise, this paper will attempt to deal with the problems evident in the perception of succession in Old Joseon. It will first distinguish between fact and fiction and correlations between the two in the locations of Goguryeo. It will also examine the possibility of correlations between motifs related to Tangun mythology present in *Dongmyeong*, a work which presents celestial worship during the Goguryeo period as well as records in *Samguk-yusa* related to *Wangryeok*, *Tangun-gi* and *Dangun-bongi* in *Samguk-yusa* and *Jewang-ungi*. Examining these records, considered to be a collection related to Songyang, we will consider them as having a relationship with the successors to the throne, Gyeru-bu, rather than with the acknowledged former members of the throne in Yeonro-bu(Sono-bu).

Key Words : Old Joseon's Mythos, Goguryeo's Mythos, Dongmyeong, Gyeru-bu, Jangcheon tombs No.1

논문 투고일 : 2013. 3. 25
 게재 확정일 : 2013. 4. 29

심사 완료일 : 2013. 4. 29